창사 68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개관기념 특별할인!
품격있는 도심속 프리미엄 추모공간
(재)메모리힐즈추모공원
www.memoryhills.kr

제9284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35 SINCE 1991 kjdaily.com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음력 9월 24일)

李대통령 "미래 투자 확대"…호남 반도체 기회 커진다

역대 최대 '821조'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지방 우대' 3대 메가에 21조여원 투입
호남 클러스터 생산기반 구축 등 지원
전력·용수·산단 인프라 2조1천억 투자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내년 착수
"모두의 성장 대전환" 균형발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 지원하기로 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우대'와 미래산업 투자를 핵심 원칙으로 담은 데 이어, 반도체 생산기반과 전력·용수·산단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까지 제시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분야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팹의 조기 가동과 함께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남광주시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역의 핵심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육성 방침이 구체적인 국비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 과제인 전력과 용수,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 투자 계획도 제시됐다.

정부는 전력·용수·산단 인프라에 2조1천억원을 투자해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의 투자 시기가 늦어지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확보가 주요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 지원의 실질적인 규모와 지역 배분이 향후 사업 추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전략도 전남광주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 원칙 가운데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우대'를 제시했다. 국토 대전환과 지방 주도 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자하고, 대규모 투자를 하는 지방 앵커기업에는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5극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내년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행정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 성장 기반을 마련한 전남광주시로서는 정부의 미래산업 투자와 지방 우대 정책을 반도체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확대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과 지방 주도 성장을 동시에 내세운 가운데, 전남광주시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지역 핵심 사업을 얼마나 구체적인 국비 사업으로 연결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김진수·기수희 기자



핑크뮬리 속 가을 만끽 가을이 깊어가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남산공원에서 시민들이 따스한 햇살에 반짝이며 가을바람에 일렁이는 핑크뮬리 군락 사이에 앉아 꽃이삭을 들어 보이며 가을날의 추억을 남기고 있다. /조영권 기자

'국립김산업진흥원' 어디로…전남광주시, 유치 채비

목포·진도·고흥 희망…연말 실사
지역 정치권과 설립 법안 조율 등
실시설계비 16억 국회 반영 건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김의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국립김산업진흥원 유치에 힘을 싣는다.

목포시와 진도군, 고흥군이 각각 유치를 희망하는 가운데 산업 여건과 입지 강점을 부각하고, 지역 정치권과 설립 법안 조율 및 후속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2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부터 국비 5억원을 들여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4월 완료 예정으로 기관 설립 필요성과 형태, 주요 기능, 입지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목포·진도·고흥 외에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도 유치 희망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용역 수행기관은 연말까지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남광주시는 용역 완료 이후 내년 9월께 입지 선정을 위한 전국 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현지 실사에서 지역의 김 생산·가공 기반을 설명하고 전남 유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정부 용역 수행기관에도 지역 여건과 자체 연구 결과를 전달하며 설립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유치 준비는 옛 전남도 때부터 이어졌다. 2024년 2월 김산업 전담기구 설립을 건의한 뒤 같은 해 자체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설립 방안을 제안했다.

전남광주시가 구상하는 진흥원은 연구개발뿐 아니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함께 지원하는 기관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우량종자와 양식기술 개발, 가공기술 고도화, 품질관리와 해외시장 개척 등을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기관의 설립 형태와 기능 등은 정부 검토와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한다.

지역 정치권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전담기관 설립을 뒷받침하고 있다. 박지원·김원이·문금주·서삼석 의원이 제안한 기관은 진흥원과 공사 등으로 나뉜다.

전남광주시는 관계 의원실·해수부와 기관의 설립 형태·기능 등을 협의해 법안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입지 공모에도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대응할 방침이다.

내년도 실시설계비 16억원 확보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용역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설계비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지역 의원실과 협력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건의하고 있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김 생산 기반에 더해 가공시설 확충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도 실사에서 설명하겠다"며 "용역이 끝난 뒤 후속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내년도 실시설계비의 국회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광주시는 김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전남광주시의 첫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마른김 가공공장의 용수 부족 해소 등을 위한 집적화단지 시범 조성 설계비 15억원과 핵심 거점 육성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운영비 50억원이 주요 국비 확보 과제로 제시됐다. /최명진 기자

Today

호남삼육중 졸업생들 '행정소송' 2면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출근길 혼선 6면
대한민국 명소 해부-순천만국가정원 7면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연중캠페인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 센스!

이동할 때
승용차 5부제(요일제) 참여하기
친환경 운전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타기

회사에서
적정 실내온도 준수 (난방 20℃, 냉방 26℃)
불필요한 조명 끄기

가정에서
저녁시간(5~8시) 가전제품 효율적으로 이용·절약하기
샤워시간 줄이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하고, 조명은 LED로 교체하기
전기차·휴대폰은 낮시간에 충전하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하기
세탁기, 청소기는 주말에 사용하기

한국에너지공단 광주 · 전남지역본부